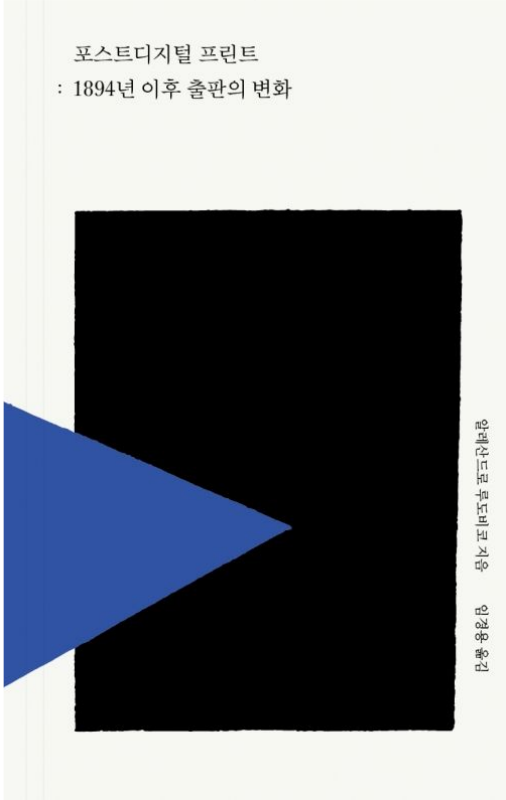
《포스트디지털 프린트: 1874년 이후 출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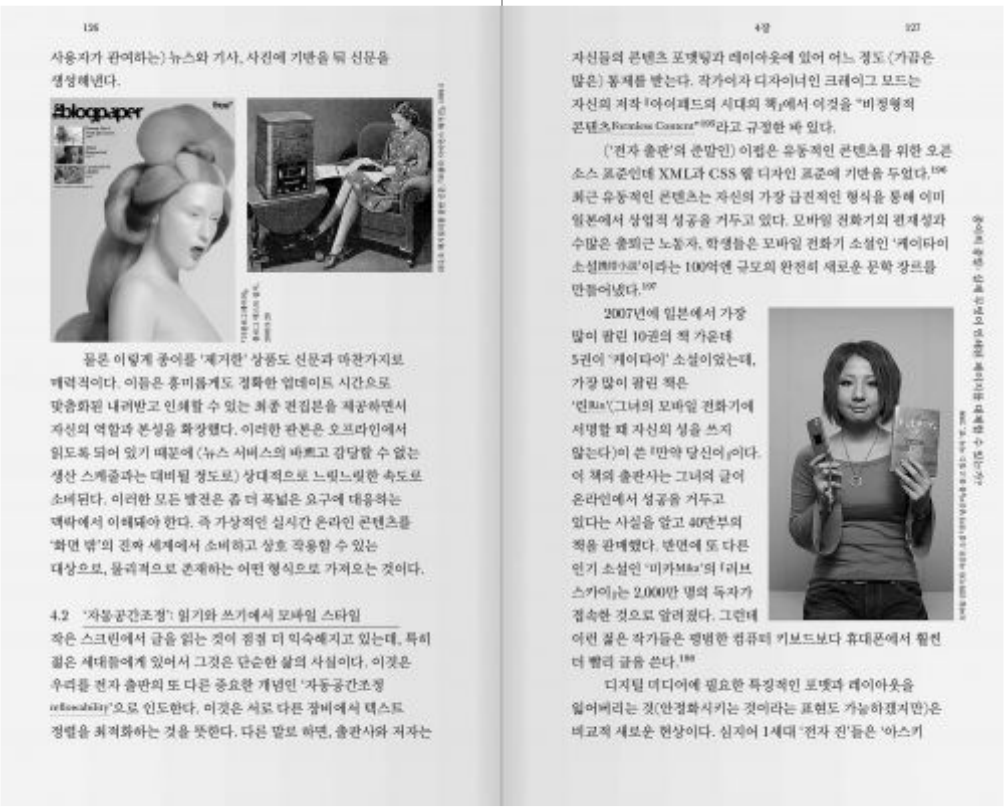
CULTURE

2017 / 05 / 11

채연

종이책의 미래는 어디로?
《포스트디지털 프린트: 1874년 이후 출판의 변화》





사용자가 관여하는) 뉴스와 기사, 사진에 기반을 둔 신문을 생성해낸다.

물론 이렇게 종이를 '제거한' 상품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 이들은 흥미롭게도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으로 맞춤화된 내려받고 인쇄할 수 있는 최종 편집본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본성을 확장했다. 이러한 판본은 오프라인에서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의 바쁘고 감당할 수 없는 생산 스케줄과는 대비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릿느릿한 속도로 소비된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좀 더 폭넓은 요구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즉 가상적인 실시간 온라인 콘텐츠를 '화면 밖'의 진짜 세계에서 소비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4.2 '자동공간조정': 읽기와 쓰기에서 모바일 스타일

작은 스크린에서 글을 읽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삶의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를 전자 출판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자동공간조정(reflowability)'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장비에서 텍스트 정렬을 최적화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출판사와 저자는

4장 127

자신들의 콘텐츠 포맷팅과 레이아웃에 있어 어느 정도 (가끔은 많은) 통제를 받는다.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크레이그 모드는 자신의 저작 『아이패드의 시대의 책』에서 이것을 "비정형적 콘텐츠Formless Content"[195]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자 출판'의 준말인) 이펍은 유동적인 콘텐츠를 위한 오픈 소스 표준인데 XML과 CSS 웹 디자인 표준에 기반을 두었다.[196] 최근 유동적인 콘텐츠는 자신의 가장 급진적인 형식을 통해 이미 일본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모바일 전화기의 편재성과 수많은 출퇴근 노동자, 학생들은 모바일 전화기 소설인 '케이타이 소설携帯小説'이라는 100억엔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어냈다.[197]

2007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권의 책 가운데 5권이 '케이타이' 소설이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린Rin'(그녀의 모바일 전화기에 서명할 때 자신의 성을 쓰지 않는다)이 쓴 『만약 당신이』이다. 이 책의 출판사는 그녀의 글이 온라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40만부의 책을 판매했다. 반면에 또 다른 인기 소설인 '미카Mika'의 『러브 스카이』는 2,000만 명의 독자가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어린 젊은 작가들은 평범한 컴퓨터 키보드보다 휴대폰에서 훨씬 더 빨리 글을 쓴다.[198]

디지털 미디어에 필요한 특징적인 포맷과 레이아웃을 잃어버리는 것(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심지어 1세대 '전자 진'들은 '아스키

《포스트디지털프린트》(알레산드로 루도비코 지음, 임경용 엮음, 미디어버스, 51,000원)와 내지

"우리 시대에 종이책은 죽었는가? 스크린은 종이를 살해할 것인가?" 알레산드로 루도비코(Alessandro Ludovico)의 저작 《포스트디지털 프린트: 1894년 이후 출판의 변화》(미디어버스 2017)가 던지는 '발칙한' 질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 종이매체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자는 "종이책을 없애려는 시도가 1894년부터 있었지만 항상 실패해왔음"을 7개의 대표적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종이책은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고, 충전이 필요 없으며, 접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는 종이책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에 익숙하다. 수백 년간 많은 장인과 전문가들이 구축해놓은 읽기의 포맷에 익숙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종이책의 물성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진다고 예견한다. 동시에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네트워크와 공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1993년부터 《뉴랄》 편집장이자 연구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앙글리아러스킨대학 영문학 및 미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우스햄튼대학의 윈체스터 예술대 부교수 겸 파슨스 파리 캠퍼스와 뉴스쿨 강사. 또한 2007년 카셀 도쿠멘타12의 〈매거진 프로젝트〉 자문을 맡은 바 있다. / 채연 기자